

무창포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 상징조형물 준공

보령시는 20일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신비의 바닷길'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상징 조형물 준공식을 개최했다.

조형물의 작품명은 국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무창포 사랑의 문(Love Arch)'으로, 석대도와 육지를 잇는 바닷길의 관문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높이 12m, 너비 10m, 길이 23m 규모의 아치형 화강암 구조물로,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로운 순간과 바다의 생명력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했으며, 천연 재료를 활용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무창포해수욕장은 서해안 최초로 개장한 해수욕장으로, 보령9경 제5경으로 꼽히는 명소다. 음력 보름과 그믐을 전후해 매달 2~3차례 바닷물이 갈라지며 약 1.5km의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은 국내외 관광객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낙조가 어우러진 포구 풍경은 서해안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조성된 조형물이 무창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포토 명소이자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대전 3월~10월 소규모 우수처리시설 기술지원

보건환경연구원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우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기술지원 사업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구청 및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진행된다.

우수(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학적 처리와 침전 등의 방식으로 정화하는 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시설물에 설치되는 소규모 가정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이 중 하루 처리용량 50m3 미만의 소규모 우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어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오수가 방류될 경우 공공수역 오염뿐 아니라 시설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연구원은 구청 담당자 및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기술인들과 함께 부적합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운영 역량을 높이고, 시설 개선 이후에도 수질검사를 실시해 기술지원의 효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정태영 연구원장은 "깨끗한 하천환경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충남도 기부물품 모아 '이웃사랑 거점'

충남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개소식 개최...물류 지원 체계 안정화 등 기대



충청남도 내 각계각층의 '나눔의 정'을 차곡차곡 모아 행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안전하게 전하는 '이웃사랑 거점'이 문을 열고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 도에 따르면, 충남사회복지협의회는 예산군 신암면에서 충남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 이정기 충남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도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행사는 김 지사 축사, 간판 제막 및 테이프 커팅, 현황 정취 및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했

다. 푸드뱅크는 기업 또는 개인이 기부한 식품이나 물품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에는 전국 푸드뱅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 및 개인에게 물품을 받아 배분하는 충남 광역푸드뱅크와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기초푸드뱅크·기초푸드마켓 24개소가 운영 중이다.

충남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는 도가 총 사업비 7억 5500만 원을 들여 예산군 신암면 1,806㎡의 부지에

643.9㎡ 규모로 마련했다.

물류센터에는 전담 인력 3명이 배치됐으며, 냉동·냉장 설비, 지게차와 냉동탑차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충청도는 이번 물류센터가 보관 등의 문제로 기부를 받지 못하거나 타지로 보내고, 운동장 등을 빌려 물품을 배분하던 문제를 해소하고, 물품 수령 및 관리, 배분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는 단순히 식품을 모아 놓는 곳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희망과 온기를 나누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재 물류창고가 없어 시군 배분에 애를 먹고, 타 시도에 보내야만 하는 상황도 발생했었다"며 "물류센터를 통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물류 지원 체계를 구축, 더 많은 이웃들에게 사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푸드뱅크에서 기부받은 물품 금액은 156억 6728만 5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배분받은 인원은 817개소 6만 6807명으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동구 돌봄지원 체계강화 업무협약

산단 주변 40개 지점 약취 모니터링, 상습 민원 해소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상생활 돌봄 등 14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일시제가 및 이동지원은 관암사회복지관,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선우노인복지센터, 한밭사랑노인복지센터 ▲영양급식은 동구지역 생활센터 차려드림, 새터마을관리사 회적협동조합 ▲주거 수리·수선은 파랑새건축이 맡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소·방역은 지역주민과함께사회적협동조합 ▲방문목욕은 잘심김요양센터 ▲단기보호는 한남요양병원, 보니파시오요양병원, 해피엔젤요양센터, 그린요양병원, 원동요양병원 등이 참여해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역 내 병·의원 및 한의사와 연계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돌봄로봇, 돌봄플러그, 홈케어링콜 등 스마트 돌봄사업도 함께 추진해 촘촘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구민의 삶을 돌보는 통합돌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한 뒤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제공한다.

이채봉 기자

전의 묘목의 매력 '묘목축제 개막'



전국 대표 조경수 전의 묘목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알리는 '제19회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0일 세종묘목플랫폼에서 묘목축제 개막식을 개최했다.

축제는 첫날부터 뛰어난 품질의 전의 묘목을 구매하고, 각양각색의 프로그램 즐기기에 현장 찾은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묘목 판매장에서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조경수와 유실수 묘목을 구매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와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도록 ▲공기 놀이틀 ▲블록 놀이 ▲얼굴 그림 그리기 ▲반려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축제는 22일까지 이어지며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1일부터 22일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보이는 풍선미술과 밴드공연, 난타공연 등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어 '내 나무 갖기 캠페인'으로 블루베리나 무늬취풍나무 등 묘목을 매일 선착순으로 500주씩 무료로 배부했다.

또한, 푸드트럭과 먹거리 구역, 편안한 관람석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한층 여유로운 축제 분위기를 제공했다. 최민호 시장은 "전의 묘목축제가 시민과 함께하는 봄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봄의 정취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가 '2026년 제1회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회의'를 열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건강 등을 분석한 뒤 향후 개입 방향,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자문이 이뤄졌다.

이채봉 기자

충북 중동사태 피해기업 500억 긴급 투입

경영안정자금으로 도내 수출기업 및 일반화물운송업 전방위 위기 극복 지원

충청북도가 최근 중동사태 여파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변경하고, 경영안정지원자금 5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중동사태 글로벌 경제 파급 및 수출입 거래·물류 차질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500억원을 중동사태 피해기업에 우선 지원해 유동성을 신속 공급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을 병행하여 도내 기업 위기 극복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상 업종(제조업, 지식산업서비스업 등) 중 ▲중동지역 수출·입 피해기업 ▲100만불 이상 도내 수출 중소기업 ▲일반 화물운송업이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은 5억 한도,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

2.8% 지원(기준 1.8% 이차보전 + 피해기업 1% 우대) 조건이며, 금융 취약 기업에 대한(갈아타기) 지원 및 기수혜기업에는 5억원 이내 추가 지원과 만기연장(1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시군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도 중동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해 전방위적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대금결제 지연, 계약 취소 운송 제재 등 중동 지역 수출·입 피해기업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연차적으로 물류비·원부자재 상승이 모든 기업의 경영부담 가중으로 직결돼, 특히 피해가 큰 도내 수출(100만불 이상) 기업과 일반화물운송업에 대한 타깃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타격 최소화나 선다는 방침이다.

자금 신청·접수는 3월 20일부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받고, 자금 소

진 시까지 지원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방문·우편·온라인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승 국장은 "중동 전쟁의 외부충격으로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단비가 되어 경영여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과 기업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정부,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 점검과 현장 맞춤형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농업기술원은 '시설원에너지 절감 기술지원단' 운영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현장 밀착형 지도를 강화한다.

이현진 기자



버스킹 | 퍼레이드 | 체험 부스 | 와구리 굿즈 이벤트 | 거리 전시

2026 장자호수 빛꽃마실

2026. 4. 11. (토) ~ 4. 18. (토) 📍 장자대로 일원(장자호수공원)

4.11. (토)

걷기행사 / 빛꽃버스킹
거리 농악 퍼레이드
개막공연 / 부스운영

4.12. (일)

백파이프&폴크댄스 퍼레이드
가곡의 밤 콘서트
부스운영

문의 | 문화예술과 ☎ 031-550-2485